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85.84	↑ 코스닥	894.48
	(+19.00)		(+14.02)
↑ 금리 (연이자율)	3.348	↑ 환율 (원/달러)	1333.70
	(+0.040)		(+3.20)

중증·응급질환에  
예산 5조  
집중 투입  
02



## 연금 고갈만 늦춘 개혁안, 내달 결정... 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두가지 방안 마련  
내달 시민 검토 후 최종도출  
구조개혁 없이 부담만 가중  
근본적 재원 조달 방안 필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를만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



장바구니 물가 점검하는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

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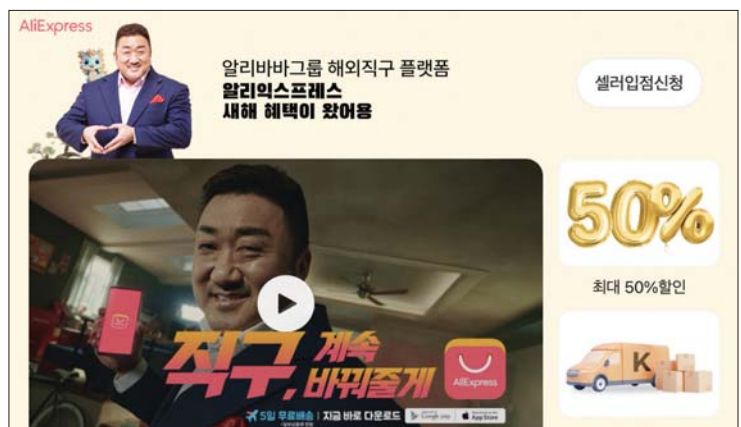
## 식품업계 줄줄이 알리行... 품질 불안은 여전

수수료 무료로 입점 가속화  
정보유출·가품논란 등 우려도  
소비자 불만 1월에만 150여건

최근 CJ제일제당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입점한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줄줄이 알리 입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부터 알리 내 'K-베뉴(K-venue)'에서 즉석밥 햇반부터 비비고 민두와 김치, 스펀, 탕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입점일인 7일부터 10일까지는 주요 상품을 파격가에 판매했으며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제품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1위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의 알리 입점은 또 다른 식품기업의 입점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원F&B가 이달 내에 입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0월 론칭한 케이베뉴에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알려진 데 이어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참치캔, 어묵, 식용유 등을 판매하는 사조대림도 이달 내에 브랜드관을 오픈할 예정이고, 대상과 풀무원, 농심 등 다른 업체들도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브랜드관인 K-베뉴를 론칭한 이후에도 입점·판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오며 상품 구성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인 데다, 수수료 부담도 없어 입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알리가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으로 카테고리를 넓히는 이유로는 식품이 구매 주기가 짧아 충성고객을 확보하기에 좋고, 잦은 방문을 유도한다는 점이 꼽힌다.

식품제조기업 입장에서 알리 입점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알리는 소비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거래처라는 것이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신뢰도가 낮은 중국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과 가품논란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의 5배 수준이다. 올해는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돼 피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고,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미국무장관에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미래세대 위해 긴밀 협력”  
▲ ‘건설업체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사진 뉴스1

▲ 새로운미래, 비례 1번 양소영·2번 전종목... 최종 13명 후보 순번 공개  
▲ 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



▲ 김진표 의장, 英·獨·네덜란드 공식 방문... 반도체 등 협력 확대 추진 /사진 뉴스1  
▲ 한동훈 “민주당에 표 주면 이재명 위해 쓰일 것... 범죄자 연대 막아야”